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13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부부관계 양상 고찰

이 현 영*

요 약

본고에서는 암시된 저자가 어떠한 인물에 공감하고 행동과 몸짓 등 어떤 측면을 중점화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청준의 정신적· 정서적 의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다룰 4편의 소설 가운데서의 암시된 저자는 독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데 이는 등장인물의 모호한 진술 및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등으로 독자들을 혼란시키기 때문이다. 암시된 저자가 실제 저자의 잠재적 분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암시된 저자에 대한 추론은 이청준 소설이 지닌 문학적 의미와 창작원리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장에서는 콤플렉스로 인한 자기 모멸과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 소심한 복수를 행하는 주인공들의 심리과정에 대해 논한다. 3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내적 욕망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윤리적 균열을 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청준의 암시된 저자가 숨겨놓은 암호는 독자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독자들로 하여금 관습과 법률에 의해 제도화된 기존의 사고방식을 되짚어 보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주제어: 이청준, 암시된 저자, 제임스 펠란, 웨인 부스, 욕망, 성적 욕망, 부부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목차

1. 서 론
2. 부부사이의 '모멸(侮蔑)'
3. 부부욕망의 '은멸(隱滅)'
4. 결 론

1. 서 론

이청준은 1965년 ≪사상계≫ 신인 문학상에 당선되어 〈퇴원〉으로 등단한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정명환, 김성환, 오상원, 오영수, 선우희는 〈퇴원〉을 당선작으로 결정한 이유를, "매우 예민한 감수성과 재치있는 관찰과 그리고 삶의 어떤 양상을 기존적 사고방식 밖에서 다루려는 의욕을 지닌 이 애매성 속에 풍요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1]이라고 밝혔다. 이청준 또한 한 대담에서 '글쓰기 행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규격화된 제도, 규율, 유용성 등과 같은 틀을 깨고, 그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2]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소설의 틀을 깬다는 것은 '부서진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운동이고 긴장'이라고 보았다. 본고가 의문을 품은 지점은 그의 등단작 심사평인 '기존적 사고방식 밖'과 '부서진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틀을 깸'이 소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다. 그간 이청준은 다양한 문제의식을 독특한 구조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서사화했으며 그에 관한 연구 또한 주제와 형식 및 작가론에 이르기까

1) 이윤옥, 「이청준 약전(略傳)」, 『본질과 현상』, 본질과 현상사, 2008. 38~39면.
2) 권오룡 엮음, 「시대의 고통에서 영혼의 비상까지」,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38면.

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본고는 그 다양한 문제의식 가운데 '기존의 사고방식'에 해당하는 사회적 규율 및 규격화된 제도들 중 근원적이면서도 동시에 파괴력이 강한 것을 '가족'으로 보았다. 특히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는 달리 정신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균열의 위험을 항시 지니고 있다. '부부'[3]는 성인이 되어 맺는 관계이므로 철저히 타인이지만 때론 혈연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양가적 위치에 존재한다. '아내'란 남편의 바로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공감'하는 '분신'같은 존재이지만 '나'가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관조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으며 이는 남편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160여 편에 달하는 이청준의 작품들 가운데 부부에 관한 내용은 몇 편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4] 또한 한두 편 소설로 한정시켜 간략하게 언급될 뿐,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청준 소설에서 '부부'에 관한 모티프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가족관계가 지배적인 논의로 이어져 왔고 배우자 역할의 경우 조력자 혹은 방관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부부관계'는 자식이 아예 부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혈연관계와는 별개의 가족관계

3) 스티븐 핑커는 배우자를 유사친족, 즉 유전적으로 무관하지만 친족이라 불리고 친족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보았다.(스티븐 핑커, 김한영 역,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동녘 사이언스, 2007. 671면)

4) 권정희의 『이청준 소설연구-가족관계의 갈등과 화해 구도 중심으로』(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에서 부부갈등의 문제는 공동의 삶을 지향하는 부부라는 관계 설정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의 주거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능성이 그 대안이라고 보았으나 본고와의 논의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의 중심이 '성적 요소'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현석의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성적 모티프의 담론화 방식 연구」(『현대소설연구』 제3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을 살펴보았는데 성적인 요소들이 다만 사건 속에 유폐된 상태로 등장하여 사건 속 인물들의 욕망 속에서만 현현한다는 점에서 본고에 참고점을 제공했으나 성이 갖는 권력적 속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상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 이처럼 이청준 소설의 부부관계는 혈연이 배제된 정신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가족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가족 중에서도 '부부관계'를 통해 규율화된 제도와 법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작가의 태도를 살펴보며 그 의미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앞서 문제제기한 '기존의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것을 알아차리는 인물은 누구인가? 이는 작품 속 암시된 저자의 의향을 통해서나 혹은 암시된 저자의 의향을 눈치 챈 독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청준은 소설의 의미를 독자가 읽어내야 하는 부분에서 작가가 침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침묵에 의해 암시하는 것, 즉 이 암시된 것을 독자가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소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5]이다. 본고는 이 지점이 '기존의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부분에 여지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이청준 소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인 '복수심'이 추가된다. 작가는 〈지배와 해방〉을 통해 소설쓰기란 '현실의 질서에 패배하고 그것에 복수를 꿈꾸는 행위'이며, 이때 복수는 '자기 삶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복수심은 타자에게 자신이 받은 무언가를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타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청준의 소설은 '기존의 사고방식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주제들과 무차별 대상을 향한 복수심에 근원을 둔 창작행위가 더해져 독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함정들이 소설 속에 마련돼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제임스 펠란 '암시된 저자'[6]

5) 권오룡 엮음, 『시대의 고통에서 영혼의 비상까지』, 앞의 책. 31면.
6) '암시된 저자'에 관한 부스의 개념은 그의 초기의 것과 후기의 것이 상이한 측면을

의 방법론으로 부부관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펠란의 '암시된 저자'는 부스의 후기 개념인 실제저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분신에 해당하는 '암시된 저자'의 '인격화'(personification) 특성에 기반을 둔다. 암시된 저자는 실제저자의 연속적 버전 즉, 특정 텍스트의 구성에서 능동적으로 역할하는 실제저자의 능력, 특성, 태도, 믿음, 가치, 기타 자질들의 실제적 하위집합으로 재규정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산물이 아니라 텍스트를 존재하도록 하는 행위 주체가 된다.[7] 특히 펠란은 저자적 행위주체의 의한 실제저자와의 연속성을 강화하면서 저자의 의도가 독자에게 미치는 윤리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암시된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에서 진술되는 것들 그 너머에 있는 폭넓은 영역의 표지와 신호들을 이야기 속에 부과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서술자와 의문시되는 서술자의 가치에 관한 추론[8]들을 이끌어낸다. 독자들은 텍스트에서 암시된 저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

지닌다. 초기의 '암시된 저자'는 저자의 이차적 자아(second self) 혹은 저자의 공적 자아(official self)로 실제저자의 인간적 면모와는 거리는 두는, 객관적인 면에 주목했다. 그러나 후기에서는 암시된 저자의 인격화(personification),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ethical) 역할논의를 보강하였다. 부스의 최근 글에서 암시된 저자는 실제저자의 잠재적인 다양한 분신들이라는 것 그리고 암시된 저자는 실제저자보다 '암시된 저자들'이 좀 더 너그러움을 지닌 윤리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최라영, 「「도스토예프스키 연작」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2. 423면) 본고는 부스 후기 개념에 영향을 받은 제임스 펠란의 '암시된 저자' 방법론이 이청준의 윤리적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펠란은 저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암시된 저자를 규정하는 채트먼과는 달리 암시된 저자를 실제저자의 연속상 상에 있는 인격적 행위 주체로서 재규정하였으며 텍스트 구성에 있어서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최라영, 「'암시된 저자The Implied Author'와 '(비)신뢰성(Un)reliability 문제' 고찰」, 『어문학』 제133집, 한국어문학회, 2016. 398~399면 요약정리)

7) phelan, J.(ed.) (2005). Living To Tell About It; A Rhetoric and Ethics of Character Narration. Ithaca, NY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p.45, 최라영, 「'암시된 저자The Implied Author'와 '(비)신뢰성(Un)reliability 문제' 고찰」, 앞의 논문, 399면, 재인용.

8) 제임스 펠란·피터 J. 라비노비츠 엮음, 최라영 역, 『서술이론 Ⅰ』, 소명출판, 2015, 194~195면.

게 되며 그들이 텍스트 너머에 있는 저자의 작중 분신을 사유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럼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정에 속하는 것[9]이다. 이처럼 암시된 저자의 서술은 독자의 해석[10]이 가능한 틈을 주기 때문에 '작품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리는 암시된 저자가 윤리적 판단을 조종하는 방식을 통해 심미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청준이 의도하는 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연유에서 본 논문이 집중한 것은 암시된 저자가 등장인물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그리고 독자들은 암시된 저자의 윤리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란 점이다.

본고에서는 암시된 저자가 어떠한 인물에 공감하고 행동과 몸짓 등 어떤 측면을 중점화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청준의 정신적·정서적 의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다룰 4편의 소설 가운데서의 암시된 저자는 독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데 이는 등장인물의 모호한 진술 및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등으로 독자들을 혼란시키기 때문이다. 암시된 저자가 실제 저자의 잠재적 분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암시된 저자에 대한 추론은 이청준 소설이 지닌 문학적 의미와 창작원리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장에서는 콤플렉스로 인한 자기모멸과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 소심한 복수를 행하는 주인공들의 심리과정에 대해 논한다. 3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내적 욕망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윤리적 균열을 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텍스

9) 최라영, 「'암시된 저자The Implied Author'와 '(비)신뢰성(Un)reliability 문제' 고찰」, 앞의 논문. 406면.

10) 고도의 서사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물에 의한 판단과 청중에 의한 판단에 매여 있다. 무엇보다도 청중에 의한 일련의 판단들이 적어도 인물에 의한 일련의 판단들만큼이나 서사성에 있어서 근본적이라는 점이다.(제임스 펠란, 「서술판단과 서술의 수사학적 이론」, 제임스 펠란· 피터 J 라비노비츠 엮음, 최라영 역, 『서술이론 II』, 소명출판, 2016. 130면)

트 탐구는 일면적인 독해가 아니라 이청준 소설을 다각도 측면을 밝혀낼 수 있는 탄력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부부사이의 '모멸'

1) 콤플렉스로 인한 모멸감과 불안한 자의식

통상 한 작가의 소설에 자의식이 노출된다면 그러한 작가의식을 형성하는 배경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서운 토요일〉(1966)과 〈나무 위에서 잠자기〉(1968)의 작중화자는 남편인데 실제 저자의 성별도 남성이라는 점에서 좀 더 작가의 자의식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 등단 직후 초기작에 해당하는 이 두 작품의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각기 학벌 및 지방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남편들로 하여금 부부 사이를 증명해 보이려는 동력을 제공한다. 〈무서운 토요일〉의 경우 신혼 초부터 최음제 없이는 잠자리를 가질 수 없는 젊은 부부의 모습, 〈나무 위에서 잠자기〉는 낙상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와 한 침대에서 잘 수 없는 곤혹스러운 남편의 심리가 그려지고 있는데 이들의 관계맺음이 Linking(유대관계 맺기)이 아닌 Ranking(서열 매기기)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무서운 토요일〉[11]의 남편은 소설 서두에서 아내를 소개할 때, 대학밖에 나오지 않은 자신과는 달리 석사학위를 밟고 있는 학벌을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그것이 탐탁지 않은 남편은 학위를 따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말해 보지만 오히려 자신의 논리 빈곤을

11) 이청준, 중단편소설 2집 ≪병신과 머저리≫, 열림원, 2001.

내보인 결과라며 자책한다. 그는 소설에서 아내가 항상 머무르는 공간이 서재임을 몇 번이나 언급하면서 논문에 골몰하고 열심인 아내를 보고 있으면 항시 피곤하고 엄청난 나태감이 몰려온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론 그가 논문에만 집중하는 아내에게 소외감을 느껴 밖으로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단순한 '소외' 혹은 '소통'의 문제로만 단정 짓기에는 아내의 '웃음소리'에 공포를 느끼는 주인공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 우선 '웃음소리'의 시초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부터 살펴보자.

>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들려준 개구리 실험 이야기→ 아내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 아내와의 불감증이 생김→ 최음제 복용→ 아내가 임신 사실을 말함→ 사격장의 꿈(꿈속에서 핏빛을 봄)→ 아내에게 아이를 지우자고 제안하자 이미 임신 중절한 사실을 듣게 됨

간략하게 도식화해보자면 남편이 아내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를 실제로 들은 건 신혼여행 때 개구리 실험 이야기를 나누던 한 번뿐, 이후에는 환청으로 들릴 뿐이다. 남편은 이야기 도중 웃음소리를 냈던 아내에게 불쾌감을 느낀 이후 최음제를 복용하지 않고서는 그녀와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 본고가 흥미롭게 본 것은 개구리 실험을 들을 당시 그의 내면심리다. 평소 이야깃거리가 전혀 없는 이 둘 사이에 처음 꺼낸 화제가 아내의 실험실 이야기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이며 '동물학을 공부하는 이 여자가 정말로 그런 실험을 했을지도' 모를 것이라 상상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반응을 살피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본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도 의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남편은 아내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내가 웃음거리로 말한 '개구리'와 자신을 동일

시한다. 이청준의 암시된 저자는 '개구리 실험' 일화를 통해 텍스트 서술자의 무력감과 열등감이 아내에 대한 거부감과 착종, 이것이 자신의 내면을 향한 공격적인 면모로 변화하여 공포심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감정은 부부 사이의 불감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급기야 최음제를 복용하지 않고서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앞서 〈무서운 토요일〉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학벌 콤플렉스'를 느꼈다면 〈나무 위에서 잠자기〉의 남편은 '지방 출신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나무 위에서 잠자기〉[12] 의 주인공이 침대에서 잠들지 못한 이유는 무의식에 배치된 콤플렉스 때문이며 그 근원은 유년시절의 경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는 처음 도시에 와 외종형과 한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을 때, '촌놈은 할 수 없구나'란 말에 침대가 싫어지게 되고 이후 아내가 외종형과 비슷한 말을 하자 그 이후 줄곧 방바닥에서만 자게 된 것이다.

이미 이청준은 자전적 일화이기도 한 '게자루 사건'을 통해 '도회살이는 늘 낯설고 서툴렀으며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주눅 들었다'는 점[13]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청준의 작가의식을 형성한 배경에는 이러한 '도시의 인식'이 있었으며 이 점이 '자아 유폐적 공간'의 양상을 보이는 단서가[14] 된다. 이청준의 '촌놈'에 대한 열등감

12) 이청준, 중단편소설2집 ≪병신과 머저리≫, 앞의 책.
13) 이청준, 『그와의 한 시대는 그래도 아름다웠다』, 현대문학, 2003. 198면.
14) 이와 관련해 김건우의 논문이 주목된다. 김건우는 이청준의 초기 소설에서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과 짝을 이루어 추방하는 자들에 대한 냉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청준을 비롯한 김승옥, 전광용, 서정인 등 4·19 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는 '낙오자' 모티프를 드러나는데 이 조건 중 하나가 '지방 출신 콤플렉스'였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이 대중화되던 첫 세대인 이른바 4·19 세대는 전광용의 말을 빌려 '명문거족' '명문고' 출신과 비명문고, 지방 출신들이 함께 섞여 대학시절을 보냈다고 진술한다. 김승옥의 「산문시대 이야기」, 에서도 경기고· 서울고-공대·상대·의대-서울(대도시) 출신 대(對) 지방고교 - 문리대- 전라도 출신의 대비가 나타나 있으며 서울 출신의 '가진 자들'에 대한

과 열패감은 도시의 세련된 삶의 모습과 서구 취향에 관한 묘사를 통해 드러난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1969)[15]를 보면 여대 거리와 그 곳을 거니는 등장인물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소설에서는 간판들의 이국적인 상호, 푸쉬킨의 시라든가 슈베르트의 연가곡 등 개인을 넘어 집단적 취향을 토대로 형성된 거리와 문화적 취향을 보여준다. 이 때 주인공의 심리는 '쑥스러움'으로 표현된다. 이 쑥스러움은 주인공이 익숙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다. 타자와의 '차이'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면 〈나무 위에서 잠자기〉는 그 이전에 해당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나무 위에서 잠자기〉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낀다고 몇 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행동이 항상 위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고장난 불빛의 +를 자신의 것으로 정하기엔 아내에게 미안하고 주제넘는 것 같아 들어 결국 -를 자신의 세(勢)로 친다거나 아내가 침대 위에서 잠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숫제 상놈 치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을 통해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 스스로가 '촌놈'으로 규정짓고 타인 또한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 단정해 버린다는 점이다. 암시된 저자는 텍스트의 서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을 낮추거나 혹은 자기 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해석하는 행동을

이들의 적개심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김건우, 「4·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2007. 제16집, 172면) 앞의 논문은 이청준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광주서중- 광주일고를 거쳐 고학을 하다시피 학업을 계속해 나왔다는 점과 도회살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참고점을 제공해 준다. 게다가 이청준이 소설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라 말한 것의 주된 배경이 빈곤과 고독을 심화시킨 도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작가의 현실인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15) 이청준, 장편소설1집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열림원, 2001.

제시할 뿐, 아내가 배우자를 무시하는 실질적 장면은 보여주지 않는다. 예컨대 남편의 과거에 대해 그는 '떳떳하고 진지했던'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아내는 '너절한 과거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고 느끼는 대목이 그러하다. '치부하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보거나 여기다'란 뜻으로 이 감정의 주체는 아내가 아닌 그녀의 생각을 추측하는 남편이다. 이에 대한 암시된 저자의 의도는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다.

한편 이 소설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침대'는 단순히 개인의 선호도 차원이 아닌 집단적 '아비투스' 차원의 상품이다. 부르디외 어법에서 빌려온 '아비투스'[16]는 문화생활, 경제적 정도 등의 계급적 환경에 의해 구성되고 전수된 취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아비투스는 다수의 승인과 동조 아래 그 보편성을 부여받게 된다. '촌놈은 할 수 없다'고 말한 외종형의 발언과 아내의 '상놈 치부'는 이런 아비투스적 차원의 의미로 해석되며 남편의 열패감 또한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외종형과 그가 '침대'를 가구의 일부분이 아니라 '구별짓기'[17]를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대에서 떨어진 사건으로 인해 그는 '침대'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나름의 이미지를 획득하지 못하자 유년시절 팽나무를 핑계 삼아 침대 자체를 거부한다. 이러한 주인공의 의식 속에는 아마도 '도시에서 추방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즉 남편은 촌놈이라는 딱지가 싫었던 것이 침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며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침대에서 자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16)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 출판, 2000. 35~39면 요약.

17) 부르디외 이론에서 빌려온 '구별짓기'는 소비상품 그 자체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는 차이에 대한 욕구, 즉 사회적 지위, 위세, 품위를 나타내거나 타인과 구별되기 위한 욕구를 말한다.(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새물결, 2006. 44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 속 남편들이 배우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과 모욕감[18]이다. 이 감정은 '내면화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인식할 때 일어나는 감정'[19]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인공들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일 뿐, 소설 속 다른 인물들의 판단, 감정이 직접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주인공들은 '사소한 일' 혹은 유년 시절의 경험으로 수치심을 느끼며 이것이 증폭될수록 심리적 압박감이 강해져, 수치심이 수치심을 낳는 자가당착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타자에게 열패감을 느낀 남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잠자리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이 우위에 서는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 여기서 이청준의 암시된 저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남편상'을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피해의식이 있는 그들에게 공감하고 연민의 정을 보인다. 이는 이청준의 소설쓰기의 근원인 '부끄럽고 무참한 심사'를 위안 받고 싶은 무의식적 심리가 발현된 것은 아닐지 짐작해 볼 수 있다.

2) 주체의 치기(稚氣)어린 복수와 자기위안

〈무서운 토요일〉의 남편은 자신이 먹는 최음제가 일주일에 한번 아내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행동처럼 진술하고

18) 모욕감(humiliation)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구분되는 감정이다. 수치심은 본인의 잘못이나 결함에 대한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이라면 모욕감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감정으로 대비되고 있다. 즉, 수치심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서 유발되는 감정이라면 모욕감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다.(김찬호, 『모멸감-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014. 64~65면)

19) 김찬호, 앞의 책. 51면.

있다. 하지만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최음제는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매개체가 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최음제는 그것을 복용하면서 가진 아이를 유산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제공한다. 남편은 최음제를 먹고 가진 아이는 영혼이 없는 육신의 잉태와 동일하다고 서술하면서 아내가 임신하는 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작중 서술자가)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실패자의 추억으로 남아 있는 사격장 경험을 꿈으로 꾸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유석은 사격장의 꿈에서 총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고 총알을 쏘는 것은 사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사선에 엎드렸을 때, '부드러운 향수 같은 것이 나를 애무해 주고 있는 기분'을 느끼고 산기슭의 타깃선이 꽃밭처럼 아름답게 느낀 이유도 이런 맥락 속에 있다[20]고 보았다. 이 견해에 본고도 공감하는 바인데 특히 사격장의 꿈 중에서 주인공이 공포를 느낀 지점은 넘어가지 않은 타깃이 괴물이 되어 다가오다 자신이 마구 쏜 총에 주변 함박눈이 핏물로 벌겋게 변한다는 점에 있다. 결국 총쏘기 즉 방사(放射)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꿈은 암시된 저자의 의향을 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임신소식을 듣는 순간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임신중절을 원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최음제는 아내의 성적 욕망을 최대치로 올리는 동시에 그녀에게 무안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용량의 최음제를 아내에게 먹이고는 정작 아내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평소 배우자에게 느껴왔던 좌절감과 모멸감에 대해 소심한 복수를 행한다. 그런데 주인공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독자들이 납득되지 않는 몇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내 몰래 주전자 속에 최음제를 섞어 놓은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가

20) 김유석, 『이청준 초기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9.

최음제로 가진 아이는 영혼이 없는 육신의 잉태와 동일하다고 말한 것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아이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최음제 복용 없이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최음제 섞인 커피를 먹이고 이를 아내가 눈치 채자 자신도 황급히 커피를 마시고는 '모른 척하고 우리도 아이를 가지자고' 애원한다. '어엿한 어른이 되기 위해' 아이를 가지자고 설득하는 남편의 모습은 복수심을 숨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나무 위에서 잠자기〉의 남편 또한 고장난 교회 불빛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방바닥에서 자는 남편이 침대에 올라가는 경우는 아내가 잠자리의 신호를 보내오는 날 중에서도 창문 밖 고장난 교회 십자가의 불빛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정해 놓은 그 때뿐이다. 그 외 남편은 아내의 신호를 못 알아들은 척 해 버린다. 물론 남편은 아내에 대한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아내를 위해 심인광고를 내는 적극성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과거를 되찾겠다고 서술한 장면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그는 신문에 광고까지 내어 자신의 옛 물건을 찾고자 하는데 이는 그 물건에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를 알지 못해 자신을 의심하고 경멸하는 아내에게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인공은 자신의 잃어버린 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남편은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려 하면 할수록 잃어버린 짐에 집착하고 그것에 귀중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남편의 진술은 독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 및 지인들을 만나거나 학교 및 관공서에서 서류를 떼는 등 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잃어버린 옛날 짐에 집착하는 주인공의 행위는 석연치 않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짐을 예전에 잃어버렸다는 점,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수취인불명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암시된 저자의 의도가 귀중한 무엇이 있어서 옛날 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찾는 행위를 통해 마치 옛날 짐에 귀한 무엇이 간수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주인공이 자신의 광고와 함께 실린 다른 심인광고를 보고 이우인과 만나는 꿈을 기억해 낸다는 점이다. 다른 두 개의 심인광고에는 집안의 물건과 돈을 훔쳐 달아난 아들, 전쟁 때 헤어진 누이를 찾는 내용이다. 그가 이들 사이에 놓인 자신의 광고를 본 순간 까닭 없이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다는 것은 자신이 찾는 물건이 그에 비례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는 주인공이 이우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건 '와이셔츠 두벌과 작업복 하의'에 대한 언급이다. 남편은 이 옛날 짐들을 통해 '떳떳하고 진지했던 나의 대학 서울시절'을 증명받길 원했으나 꿈 속 이우인이 내민 것은 와이셔츠와 작업복이다. 와이셔츠와 작업복은 대립되는 기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대학생 출신임을 증명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 암시된 저자는 남편의 출신에 대해 모호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직업군이 다른 옷들의 나열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열등감이 시골 출신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으리란 여지를 주고 있다. 남편은 심인광고와 꿈을 통해 더 기가 죽게 되는데 이는 아내에게 진실이 들킬까 두렵기 때문이다. 광고만 내면 아내와 동등해 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침대에 잠들었으나 꿈속에서 보잘 것 없는 짐들만 본 그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내려와서 잔다. 주인공의 두려움은 급기야 아내가 잠에서 깨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무서운 토요일〉과 〈나무 위에서 잠자기〉은 소위 '을'에 해당하는 남편들이 '갑'에 해당하는 아내에게 은밀한 복수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남편이 아내의 성적 감

정을 모른 척 해 버린다거나 반대로 아내의 동의 따위는 묵살해 버리는 행위들이 모두 잠자리와 연관된다는 점이다. 비겁한 승부에서 이겼을 때의 짜릿함, 강제성 등이 혼종되어 있는 남편의 행동에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려는 복수심이 전제되어 있다. 이 점은 콤플렉스가 그들의 윤리의식마저 약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정생활에 대한 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주인공들은 치기(稚氣)어린 행동으로 그치고 만다. 본고는 이러한 면모가 불안한 도시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청준 삶의 적응력과 자의식이 표출된 것이라 여겨진다.

3. 부부욕망의 '은멸(隱滅)'

앞선 작품들이 배우자 개인의 감정에 치중했다면 〈가면의 꿈〉(1972)과 〈치자꽃 향기〉(1976)는 배우자 사이의 암묵적 동의하에 벌어지는 은밀한 욕망이 그려진다. 〈가면의 꿈〉[21]은 자살한 남편과 이를 보고서도 방관한 아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촉망받는 젊은 법관인 명식은 부족할 것 없는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주 변장을 하고 밤 외출을 즐기는 이중적 인물이다. '명식'이란 캐릭터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법관이라는 직업과 변장할 때 쓰이는 가면이다. 보편적으로 가면은 얼굴을 감추는 데 쓰는 일종의 탈을 떠올릴 수 있는데 소설 속 가면은 가발, 안경, 콧수염 등 소품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품'은 자신의 얼굴을 온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이하지 않을뿐더러 가면 착용자와 관람자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언자〉의 가면과는 차별화된다. 본

21) 이청준, 중단편소설3집 ≪가면의 꿈≫, 열림원, 2009.

고는 이청준의 암시된 저자가 가면이라 지칭한 것이 아마도 '다른 존재' 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첫 번째 근거로 이웃 주민들과 아내가 변장한 명식을 보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낯선 사람' 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특히 아내는 4차례에 걸쳐 남편의 가면 쓴 모습을 '첫 날 한번 밖에' 없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그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 지연은 밤 외출을 나갔다 돌아온 남편이 침실로 내려오지 않자 2층 서재로 올라가 아직 변장을 풀지 않은 그를 보았다고 서술해 놓고는 그 다음 구절에 오면 '첫날 한번' 본 것이 전부라고 번복한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진술에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그렇다면 본고는 '첫날 한번 본' 것만 강조하고 이후에 본 것을 숨기는 아내의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명식을 다른 남자로 생각한 첫날의 감정이 그 단서가 된다. 갑자기 견딜 수 없게 남편이 보고 싶을 때 그녀가 떠올린 얼굴은 명식 그 자체가 아니라 '꼭 한번 밖에' 본 일이 없는 가면을 쓴 모습이며 이것이 근자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란 점에서 아내에게 '첫날 한번 본' 가면의 얼굴은 낯선 남자와 동일시된다. 또 다른 근거로는 변장을 하고 밤외출에서 돌아온 명식이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자 지연이 올라가서 그와 대면하는 장면을 통해서다. 2층에 올라온 지연은 명식이 부르는 소리에 쑥스럽게 방안으로 들어서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게 두려움을 느낀다. 명식이 가면을 쓴 그대로 아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지연은 방안을 박차고 나와 버리는데 이는 낯선 남자와 남편 사이에서 오는 인식의 혼란 때문에 발생된 반응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명식조차 자신이 '낯선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했다는 점이다. 명식이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보는 이웃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 변장 그 자체보다 변장을 한 후 '밤 외출'이 동반[22]되어야 스트레스가 해소된

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밤 외출'이후 '아내와의 잠자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단순히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명식=낯선 사람이라는 공식이 부부 사이에 암묵적 합의를 이루었으리라 짐작된다. 여기서 명식과 지연은 공범이다. 명식이 아내에게 변장한 모습을 들키고 아내 또한 밤외출을 조력했다는 점은 부부 모두 '낯선 사람'이란 대리자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아내의 배려는 단순히 남편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라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조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의 탈출구는 '밤 외출' 자체가 아닌 '타인과의 잠자리'라는 점이다. 이청준의 암시된 저자는 가면과 밤 외출, 잠자리의 공식을 일관성 있게 묘사하지 않고 텍스트의 서술자인 아내의 진술을 모호하게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남편의 직업을 고려해 보면 앞선 전제가 좀 더 납득하기 쉬워진다. 판사라는 직업은 범죄자들을 다루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규율과 윤리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주체인데 명식의 변장과 밤외출 그에 따른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진 행동들은 사회적 규율에 균열을 가한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타자들을 규율해 왔던 그는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파괴충동을 이런 행위들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는 명식이 자신을 억압해 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낀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 추측된다. 아내 또한 판사 아내로써 지켜야 할 품위와 윤리적 관습에서 벗어나 명식을 낯선 남자로 인식하고

22) 서사행위의 주요 동기는 서사물 내에서 뒤에-오는-것은 결과-되는-것으로 읽혀진다고 하는, 연속성(consecutiveness)과 결과(consequence)의 혼동에서 찾아내야 한다. 서사물의 두 대목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가 명시적으로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암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데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62면)

그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제 일탈이 아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허용된다는 점에서 주체의 내적 욕망과 보편적 윤리 사이의 갈등을 고민해 온 이청준의 소설관[23]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연의 진술 중 독자의 의구심을 강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남편의 자살 직전 모습을 지켜볼 때다. 메큐언에 따르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의 경우에, 극적 아이러니는 고도로 이례적인 서술자의 의도와 서술자의 의문시되는 가치 체계 그리고 일반 독자들의 일반 세계- 지식, 가치, 준거들 그 사이의 모순으로부터 결과[24]가 비롯된다고 보았다. “어쩌면 하얀 달빛을 향해 몸을 날려 하늘로 사라져 올라가버릴 듯”(202면)한 남편의 모습에 취해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볼 뿐 그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창가에서 움직일 줄 모르는 가면의 하얀 울음을 남겨둔 채 쫓겨들 듯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가”(203면) 버린 지연의 모습은 명식의 자살을 방조하는 장면을 보여준 대목이기도 하다. “잠이 깊었을 리도 없는데 이날 밤 가면의 추락음을 듣지 못했다”는 아내의 진술엔 모순이 있다. 게다가 지연은 남편의 시체를 보고서도 “하얀 얼굴이 꿈꾸듯 조용히 잠들어 있다”라며 그를 우아하고 이상적인 존재로 포장한다. 지연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과 진술은 평소 남편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단서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소설 곳곳에 숨겨둔 암시들로 인해 명식이 지연의 동경 대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예컨대 지연이 남편의 인품보다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한 그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점, 주로 2층 서재에만 있는 남편을 한없이 기다리기만 할 뿐 어

23) 이청준, 「내 허위의식과 싸움」, 『작가세계』, 14호, 1992.
24) 제임스 펠란· 피터 J 라비노비츠 엮음, 최라영 역, 『서술이론 Ⅰ』, 앞의 책. 194면.

떤 요구도 먼저 하지 못한다는 점, 남편과 아내가 위치한 곳이 수평공간이 아닌 수직공간에 있으며 지연은 항상 아래에서 남편이 있는 위쪽으로 올려다본다는 점, 정면으로 바라보기보다 창밖이나 어둠 속에 있는 그의 얼굴 측면이나 목소리가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아내의 입장에서 그가 지닌 자랑스러운 이력 및 낯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현실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주체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실을 통해 역설적으로 영원히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을 소중한 그 무엇을 획득할 수 있게 한 것[25]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편의 자살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자신이 본 모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26]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아내 또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작품에서는 '낯선 사람=남편' 이란 점을 아내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아래 작품에서는 아내를 은밀하게 속이는데 성공한다. 〈치자꽃 향기〉[27]는 친구의 시선에서 아내의 몸을 훔쳐보기를 욕망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치자꽃 향기는 남편 지욱에게 여성의 아름다운 환상과 냄새를 떠올리게 하는데 더 이상 아내의 몸에서 맡을 수 없게 되자 친구 영진의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리가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아내에게 승낙을 받아낸 지

25) 지젝에 의하면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는, 애초부터 잃어버린 것인 대상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직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다루는 것"이라고 밝혔다.(슬라보예 지젝, 김소연 옮김,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173~174면)

26) 뒤르켐이 든 예를 보자면 파산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도 가난하게는 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산의 불명예로부터 자신과 가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에밀 뒤르켐, 황보종우 역, 『자살론』, 청아출판사, 2008. 363면)

27) 이청준, 중단편소설2집 ≪병신과 머저리≫, 앞의 책.

욱은 영진의 시선에서 달빛 아래 비치는 아내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우물가로 향하게 되고, 그 날 밤 이들은 친구 아내와 남편 친구의 입장에서 잠자리를 갖게 된다. 치자꽃향기는 지욱이 총 3번에 걸쳐 서술하는데 시간상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교 4~5학년 때 누님과 동네 처녀들의 밤 목욕 보초를 섰던 화자가 그녀들의 몸을 훔쳐봤던 일
② 대학생 시절, 어느 아침 자신의 2층 하숙방에서 빗줄기를 맞고 서 있는 가정부 처녀애의 몸을 훔쳐봄
③ 마흔 가까운 나이에 아내의 벗은 몸을 친구 영진의 시선으로 훔쳐봄

이 세 가지 경험은 모두 지욱의 경험이지만 본문 내에서 암시된 저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험 모두 영진의 이름으로 표기해 마치 영진의 경험인 것처럼 독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독자들은 '어쨌거나 아내에겐 모두가 그렇듯 영진의 경험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한 줄로 언급된 것을 유심히 보지 못한다면 서너 페이지에 걸친 추억담 속에서의 주인공은 영진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착각하기 쉽다.[28] 암시된 저자는 지욱이 영진을 언급할 때, 가엾은 영진, 불행한 친구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진짜 영진이 그러하다고 여기도록 유도한다. 이는 친구의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기 위한 암시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눈여겨 볼 것은 세 번의 경험들에서 치자꽃향기, 달빛, 웃음소리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첫 번째 경험에서 지욱이

28)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형의 경험을 자신의 환부인 것처럼 아파했던 아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치자꽃향기〉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마치 타인의 경험인양 전도시키고 있다. 이청준이 60년대 작품인 〈병신과 머저리〉에서 환부가 없는 환부의 세대를 보여주었다면 70년대 작품인 〈치자꽃향기〉에서는 자신의 욕망 혹은 환부를 객관화시키려 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처음으로 들었던 소리는 누님을 비롯한 우물가 처녀들의 키들거리는 웃음소리였다. 지욱은 당시 '꼬마둥이'에 불과했으나 흰 알몸을 훔쳐보는 것에 대해 '공연히 부끄럽고 몹쓸 죄를 짓는 듯한 기분'과 '불안스런 조바심'을 떨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유년 시절에 심어진 관음증에 대한 죄의식은 이후 웃음소리로 변형되어 환청으로 들리게 된다. 치자꽃향기는 지욱의 성적 욕망이 환각으로 표출되는 것이며 달빛[29]은 그의 욕망에 환상적 이미지를 아름답게 포장시키는데 이때 청각, 시각, 후각 등 복합적 심상이 다양하게 동원된다.

한편 지욱은 관음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단언한다. 첫 번째 경험에서 동네 처녀들이 달빛이 밝은 밤이면 더욱 극성스럽게 밤 목욕을 즐긴다는 점, 두 번째 경험에서 처녀아이가 앞집 유리창가에 가끔 사람의 눈길이 스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으련만 전혀 아랑곳을 않고 있는 눈치라는 점, 세 번째 경험인 아내가 여인 특유의 은밀스런 수줍음과 교묘한 유혹의 눈짓 등 유혹적인 자세를 만든다는 구절 등을 통해서다. 여성들이 타자의 눈길을 즐기고 있다는 점은 나체를 훔쳐보는 지욱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훔쳐볼 때마다 '웃음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것이며 특히 세 번째 경험의 경우 친구 아내를 훔쳐본다는 설정 때문에 죄책감이 가중되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우물가에서 도망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욱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더욱 친구인 영진이 되고자 노

29) 통상 이청준 소설에서 전짓불 등의 불빛은 부정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반해 여기서 달빛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달빛은 사물이나 존재를 실제보다 나은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달빛이 실제로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욱의 두 번째 경험에서 주인공이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세찬 빗줄기 속 여자의 알몸에서 뽀얀 달빛을 보았다고 서술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본고는 이청준이 실제로 존재하는 달빛 자체의 명시적 기능보다 그것이 가진 추상적인 이미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력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아내는 자신을 훔쳐본 주체가 남편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옅은 화장까지 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 남의 아내를 범하고 싶은 은밀스런 심사를 다짐하고 집에 들어선 남편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게다가 이청준의 암시된 저자는 긴장을 유발하는 지욱의 관음증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음을 다른 시간적 배경 사이에 교묘하게 감춰둔다. 처음 아내에게 노출을 부탁했을 당시 치자꽃이 피어있는 초여름이었으나 소설의 서두에서는 음력 7월 백중달이 돋는 날로 표기한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지욱의 관음증은 진행형이다.

이처럼 '가면'과 '치자꽃향기'는 배우자들의 욕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이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이청준의 암시된 저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변화와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주체들의 정서적 편린을 보여준다. 이청준의 암시된 저자는 〈가면의 꿈〉에서 법을 집행하는 '판사'란 직업이 갖는 윤리적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이용해 낯선 사람이 되어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다는 점, 더 나아가 〈치자꽃향기〉에서는 친구 아내를 간음한다는 비윤리적 행동을 소설 이면에 숨겨두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법적 부부들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중요한 것은 부부들이 잠자리를 가질 때 상대방 배우자를 타인으로 인식하고 그 상대 배우자 또한 자신이 남편 아닌 타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서로의 욕망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청준은 몇 가지 요소들의 위장을 통해 소설 속에서 관습, 규범 등 사회질서의 파괴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 균열을 꾀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대한 소극적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 결 론

본고는 이청준의 부부관계를 통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작가의 정신적·정서적인 의향을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4편의 작품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속 부부들이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서운 토요일〉의 최음제와 〈나무 잠자기〉의 십자가 게임, 〈가면의 꿈〉의 가면 소품 및 밤 외출, 〈치자꽃향기〉의 관음증 등이 그것이다. 아무래도 소설 속 화자들의 관계가 부부이다 보니 잠자리에 관한 소재가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위 소설들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인 간 갈등의 근원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위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배우자들에게 '모른 척' 하는 행동을 취한다. 사전적 의미로 '모른 척'은 알면서 표시내지 않는다는 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서로에게 해명하고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만듦으로써 주체로 하여금 곤란한 상황을 제공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작품 속 암시된 저자는 독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인물들의 행동을 소설 곳곳에 숨겨 두었다. 암시된 저자가 실제 저자의 연장선상이라는 제임스 펠란의 의견을 감안할 때 여기서 우리는 이청준 소설쓰기의 근원인 복수의 표현방식과 창작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청준은 암시된 저자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알아차리기 힘든 함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듦으로써 은밀한 복수를 행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의 발표시기가 60~70년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대적 상황을 의식한 의도적 장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암시된 저자는

텍스트의 인물들을 통해 오늘날 문화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규범들 즉, 상식적인 심리 행위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준거와 가치에 대해 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이 이청준의 창작관과 연관되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이청준의 암시된 저자가 숨겨놓은 암호는 독자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독자들로 하여금 관습과 법률에 의해 제도화된 기존의 사고방식을 되짚어 보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처럼 작가는 소설 속 평범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통해 현실의 균열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확립시키고자 했다. 독자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개인의 욕망을 지켜보며 오히려 암시된 저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비로소 개인의 존재 또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 참고문헌 ■

이청준, 중단편소설 2집 ≪병신과 머저리≫, 열림원, 2001.

_____, 중단편소설3집 ≪가면의 꿈≫, 열림원, 2009.

김건우, 「4 · 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2007. 제16집, 172면

김유석, 『이청준 초기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9.

김찬호, 『모멸감-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014. 64~65면.

권오룡 엮음, 「시대의 고통에서 영혼의 비상까지」,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38면.

권정희, 『이청준 소설연구-가족관계의 갈등과 화해 구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리몬 케넌, 최상규 옮김, 『小說의 詩學』, 1985. 문학과 지성사, 115면.

스티븐 핑커, 김한영 역,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동녘 사이언스, 2007. 671면.

슬라보예 지젝, 김소연 옮김,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173~174면.

에밀 뒤르켐, 황보종우 역, 『자살론』, 청아출판사, 2008. 363면.

이윤옥, 「이청준 약전(略傳)」, 『본질과 현상』, 본질과 현상사, 2008. 38~39면.

이청준, 『그와의 한 시대는 그래도 아름다웠다』, 현대문학, 2003. 198면.

_____, 「내 허위의식과 싸움」, 『작가세계』 14호, 1992.

이현석,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성적 모티프의 담론화 방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3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62면.

제임스 펠란 · 피터 J. 라비노비츠 엮음, 최라영 역, 『서술이론 Ⅰ』, 소명출판, 2015. 194~195면.

_____, 『서술이론 Ⅱ』, 소명출판, 2016. 130면.

최라영, 「'암시된 저자The Implied Author'와 '(비)신뢰성(Un)reliability 문제'

고찰」, 『어문학』 제133집, 한국어문학회, 2016. 399면.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새물결, 2006. 44면.

헬무트 본하임, 오연희 역, 『서사양식-단편소설의 기법』, 예림기획, 1998. 91면.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 출판, 2000. 35~39면.

<Abstract>

The married couple relationship pattern of Lee Chung-Jun's novel

Lee, Hyon-Young

In this paper, we focus first on how narrative methods are drawn by the implied author as a married couple relationship in his novel. On the basis of such analysis, we try to guess the intention of the artist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der. At this point, the central theme is not intended to be intentional, but to reveal the conditions that the reader finds out about and finds the condition of the reader. In Chapter 2, we discuss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the humiliation caused by the complex and the timid revenge to avoid it. Chapter 3 focuses on whether the inner desire of the narrator applies the crack of ethics within the legal framework. Lee Chung-Jun's novel has the aspect that the fundamental desire is a response to some frustration and aspires to an accident outside the conventional sense. Considering this point, this paper discusses how it succeeds in realizing pluralism towards opponents who have frustrated their desires and whether they act as a device to crack the institutional devices and norms in order to satisfy the surrogacy of desires through detour.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spouse’ is nothing else. Through this, the writer tried to establish his own existence by breaking the reality through the unfamiliar couple relationship in the novel. The reader sees the desire

of the individual against the common sense, and rather the active recognition of the implied author is made, and this point will be given a new meaning of the person's existence in Lee Chung Jun's novel.

Key words: The implied author, married couple, humiliation ,desire, James phelan, Booth

투 고 일 : 2017년 4월 28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10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